

이 어 령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1991년 1월 23일 태어난 국립국어원(당시 명칭 국립국어연구원)의 산파역은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이었다.

이어령 이사장은 문학 평론가, 이화여대 교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논설 위원, 문학사상 주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며 문단, 학계, 언론계, 관계에 뛰어난 발자취를 남겼다. 그 뿐만 아니라,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250만 부가 넘게 팔린 최장기 스테디셀러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를 비롯해 수백 종의 저작물을 펴낸 엄청난 필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또한 특유의 영감과 상상력으로 디지로그, 생명자본주의 등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해 시대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어령 이사장을 만나 국립국어원 20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립국어원이 새로 도약하기 위해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들어 본다.

답변자: 이어령(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질문자: 장승욱(작가)

때: 2011년 2월 9일

곳: 중앙일보 6층(서울시 종구 순화동)

장승욱: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어령: 내가 한 2년 전부터 ‘생명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를 경제적인 관념으로만 생각하고, 자본을 물질로만 여겨 왔는데, 원래 자본, 즉 캐피털(capital)은 ‘소머리’를 뜻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식 또는 증식이 가능한 것이 자본인데, 그것이 돈으로 바뀌면서 돈이란 것은 증식을 못하니까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자본주의는 생식 가능한 생명을 자본으로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문화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또 경제생활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경제는 왜 꼭 경제학자들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역사, 문학, 예술, 종교, 농업 등 각 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자본주의 포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3월에 창립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기조연설을 맡게 되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정리했는데 아카데미즘은 정리를 못 했어요. 대학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예술 분야, 문학 분야, 언론 분야…… 이런 것만 알지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뭘 가르쳤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몇몇 제자들 암혀 두고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에서 가르친 내용을 총정리 할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대학교수로 지내 온 내 반쪽을 갈무리하는 것이죠.

올해는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사람 만나고 방송 나가는 일도 모두 그

만두고 이 두 가지 일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장승욱: 선생님께서는 지난 1990년에 초대 문화부 장관이 되셨고, 취임 얼마 후에 국립국어연구원(지금의 국립국어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장관이 되실 때, 원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어령: 그렇죠. 그때 국어 정책이나 국어 문제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육부는 표준어를 가르치는 기능을 하면 되는 것이고, 문화로서의 언어를 다루는 기관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언어 현상은 각 분야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살아 숨 쉬는 언어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것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또 몇 천 년 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언어생활이 한자 중심으로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 거기서 벗어날 때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비질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국어연구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글날 공휴일 폐지에 내가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휴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내가 문화부 장관이 되기 전에 이미 폐지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민주화되기 이전 서슬 푸른 군사 정부 시절이고, 더군다나 국군의 날까지 공휴일에서 빼는 마당에 한글날 가지고는 어떻게 손씨 볼 방법도 없이 결정이 다 돼 있었던 겁니다. 또 공휴일 없애고 하는 것은 당시 총무처 소관입니다. 그래서 국어연구원이라도 만들자 그렇게 된 거지, 한글날 공휴일 폐지에 내가 동의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잘 몰라서, 또 행정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문화부가 기난하니까 ‘움직이는 도서관’, ‘움직이는 미술관’을 하려고 현대 정주영 회장에게 애기를 해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문화 사업이고, 또 문화부는 사업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약점 잡힐 게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들을 확보해

눴는데도 총무처에서 운전 인력 정원이 없다고 해서 그 차들을 몇 달 동안 놀린 적이 있어요. 이런 행정 메커니즘을 알면 그런 소리 못 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글날 공휴일이 폐지되고 동시에 국어연구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장승욱: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뒷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령: 그때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때라 국가 출연 연구소를 폐쇄할 땅니다. 새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웠죠. 관계 부처 사람들도 굉장히 방어적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장승욱: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립국어원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해 온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어령: 내가 생각하는 국어연구원은 일본의 국어연구원 같은 행정 중심이 아니었어요. 상용한자를 몇 천 자로 한다,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꾼다, 저는 그런 건 질색입니다. 말은 생명체죠. 죽고 사는 것은 제 운명입니다. 우리가 기껏 해 봐야 짐승 기르듯이 우리나라 만들어 주고 먹이나 주는 정도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실패한 한글화 같은 것을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노건(路肩)’이라는 말 대신 ‘갓길’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처럼 행정 용어나 법률 용어에서 법으로 될 수 있는 것, 자연 발생적이 아닌 것은 고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일본식 한자어라도 우리말 속에 융합돼서 우리말화한 것까지 고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취합(取合)’처럼 생경하게 남아 있는, 그것도 일상생활이 아니라 관료층에 남아 있는 말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강력하게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 개념으로서의 언어, 예술 언어, 창작 언어는 소설이든 시든 기본적 자원이 언어 자원이기 때문에 이 언어 자원의 인프라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해야겠다, 시장 원리로는 풀리지 않을 때, 인공적으로 둑을 쌓고 방풍을 해 주는 그런 방어 역할을 국어연구원이 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사실 당시에 시급했던 것은 사전 편찬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한글 사전이란 것을 보면 표제항도 똑같고, 그 안의 언어, 그러니까 풀이 언어도 아주 넓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1950년대에 쓰던 뜻풀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 사전을 보면 시대별로 달라진 의미가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전을 민간에서는 절대 못 만드니까 문화부가 하자, 국어연구원이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표준국어대사전이 나오긴 나왔는데, 나 스스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의도했던 그런 사전은 아닙니다. 파는 사전이 아니라 마치 표준 시계를 만들듯이 만들어 놓으면 민간에서 참고해서 새로운 뜻을 덧붙여 나가는, 그런 사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애를 써서 만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잘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온 것만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원 자체의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의 국어원이 내가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국어원이냐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반은 그동안 이뤄 온 게 많다고 생각하고, 반은 국어원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회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원장들이나 문화부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정부의 다른 부서들도 아직 문화가 뭔지 를 모르는 것 같고…….

장승욱: 국어원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어령: 적어도 국립국어원 원장은 관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연구원들을 두어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하게 해야 합니다. 쓸모가 있든 없든 대학에서 못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별로 운영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언어 행정에 지나치게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 느낌입니다.

장승욱: 지난해 개최된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 언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어령: 물론이죠. 그건 사실 폭탄선언이었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세종대왕 친양은 그만두자는 거예요. 이제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선양하는 종교적 한글 예찬에서 벗어나 한글을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키우고 다듬어 가는, 새로운 의미의 한글 연구, 문자 연구가 필요합니다. 국어원도 지금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한 20년 됐으니 이제는 전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표준이라는 것이 행정 위주로 되면서 얼마나 언어를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포크너는 미국의 국민 작가인데, 그 사람이 만든 말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황토흙’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다 ‘황토흙’이라고 하지 황토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황토흙, 처갓집, 역전 앞, 쟁단, 라인 선상…… 이렇게 쓰면 이게 말입니다. 말에 무슨 아인슈타인 법칙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고에 ‘황토흙’이라고 쓰면 ‘흙’을 다 지워 버립니다. 언어는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어원이 관료화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황토로 하더라도 국어원에서는 ‘황토흙’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동해 바다’로 고래 잡으러 간다고 하는데, 국어원에서는 ‘동해 바다’는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누구 맘대로 맞

느니 틀리니 하냐는 말이에요.

이제는 세련되자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어 언어를 뺏기고 혼란스러웠을 때는 세종대왕을 선양하고 한글을 기리고 해야 하지만, 그런 때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 래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세미나 아닙니까? 하던 대로 질하자, 이러는 건 세미나가 아니라 ‘다짐 대회’죠. 그래서 지난번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국어원이 좀 더 벤처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일반 기업이나 대학에서 엄두를 못 내는 일을 앞장서서 해 나가는 비관료적인 연구체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기호학이라든가 수사학도 과감히 도입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문자를 기피했나, 플라톤은 기피하면서도 왜 문자를 썼나, 무문자 민족의 사고방식은 무엇이고, 영상 사고와 문자 사고는 어떻게 다른가. 논의할 것이 너무 많은데, 답답하게 우리 언어를 갈라파고스 열도 안에 가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20주년이니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으면 혼란스러웠겠죠. 20년 동안 다져 온 토대 위에서 또 한 번 도약하면 2단계 로켓을 쏘듯이 경천동지할 폐려다임을 만들어 또 20년 가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오해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승욱: “IT의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의 글과 말이 큰 변형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평소 생각하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령: 문자 인식이라든가 음성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음성 인식이 되면 키보드를 없앨 수 있거든요. 120년 동안 타이프라이터를 두들기고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것을 서

양 사람들이 와서 해 주겠어요? 내가 문화부 장관이나 국어원장이라면 지금 당장 지식경제부 같은 데하고 같이 문자 인식, 음성 인식에 매달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돌아다니는 스마트카드 같은 것들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제2의 언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승욱: “사라져 가는 토속어를 지키기 위해 국어원은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속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어령: ‘기립다’, ‘기리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쉽다’, ‘희귀하다’라는 뜻의 충청도 사투립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설탕 배급이 안 나오면 “요즘은 설탕이 기리워.” 그랬거든요. 설탕이 희소하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김유정 소설에 나오는 동백꽃, 강원도의 동백꽃은 흔히 아는 빨간 동백꽃이 아닙니다. 심지어 김소월 시에 나오는 ‘갈잎의 노래’의 갈잎이 갈대의 잎이라고 모든 참고서에 나와 있어요. 갈잎이란 “송충이 가 갈잎 먹으랴.” 하는 것처럼 침엽수의 반대인 활엽수의 마른 잎을 뜻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문학 작품을 불구의 언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규범 문법의잣대를 곧이곧대로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국어 교과서라 할지라도 아예 안 실으면 안 실었지 문학 작품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책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서문을 교과서에 싣는다면 반드시 ‘황토흙’으로 하라고 할 겁니다. 내가 세 살 때 배운 말인데, ‘황토’라고 하면 말하다 만 것 같은데, 그게 내 글이냐 이 말입니다. 옹졸하게 문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언어가 풍부해집니다.

장승욱: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장가로 꼽히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좋은 글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어령: 좋은 글이란 신분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분증이라는 것은 여권이 그런 것처럼 유효 기간이 지나면 아무 짹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작가가 쓰는 글은 적어도 신분증 같은 언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유효 기간이나 유통 기한이 없는 언어를 써야 합니다. 당대만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아주 값싼 문제, 이른바 톡톡 튀는 알파한 기지, 무슨 카페라이터적 발상…… 이런 데서 벗어나서, 유행적인 언어가 아니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언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모든 사람이 한국의 풍토(風土)라고 할 때, 나는 그걸 뒤집어서 흙바람,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고 했습니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고 하니까 풍토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훨씬 더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저’ 자를 빼 보세요. 맛밋해서 맛이 안 납니다. ‘저’를 넣음으로써 바람이 시각화됩니다.

좋은 글은 ‘관념이 어금니에 씹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념이란 것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데 어금니로 깨물 수 있다…… 이것이 최고의 문장이죠.

장승욱: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어령: 상상력과 관점이죠. 음악에만 음치가 있는 게 아니고 언어에도 음치가 있어요. 내로라하는 최고의 비평가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막상 문장을 보면 음치, 언어치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문장 뒤는 다 ‘것이다’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는 읽다가 ‘것이다’가 한 페이지에 서너 번만 나오면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것’이라는 게 불완전 명사잖아요? 철저하게 사고하지 않아서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이상 나오

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모두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단한 학자들, 대단한 비평가들이 문장은 그렇게 씁니다.

또 정확한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정확히 정의한다고 해서 그 문장이 아름다워집니까? 아름다운 언어는 정확한 문장이 아니에요. 감동을 주고, 문법에 맞지 않더라도 전기처럼 찌릿찌릿 충격을 주는 것이 아름다운 문장이지, 물에 술 탔는지 술에 물 탔는지 모르는 표준형 글은 따분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장승욱: <햄로크를 마신 뒤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지식·정보·지혜>라는 제목의 이화여대 고별 강연을 “당신은 진정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슘페터의 질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수, 장관, 평론가, 작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해 오셨는데, 진정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이어령: 크리에이터, 즉 창조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생 노릇을 오래 했으니 훌륭한 선생으로 기억되는 것도 좋겠지만, 훌륭한 선생으로 기억되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창조적인 자극을 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운명을 바꾼 사람이다, 그때 저 사람 강의를 듣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창조적이라는 것은 항상 남에게 충격을 주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까, ‘씨앗 뿌리는 창조자’,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100년 후에도 “그 시대에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네.”, “그래도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있었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승욱: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어령: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생명자본주의와 관련한 일, 그리고 ‘마

지막 수업' 말고도 두어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 이야기'를 쓰는 일입니다. 내 자서전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함께했던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써 보려 합니다. 『로마인 이야기』는 그렇게 재미있게 읽는데, 왜 한국인 이야기는 없을까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몇 천 년 동안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고, 반세기 가까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또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늘이 무너져도 다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영향을 주는 나라가 돼야지 영향을 받는 나라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무보수로 일하는 곳이 이 연구소입니다. 인구 5,000만 명의 소국이 13억의 중국, 또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루고 과학 기술이나 경제 면에서 앞서 있는 일본,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세 나라를 비교, 연구해 우리의 고유한 것은 무엇이고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별써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힘이 닿는 데까지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승욱: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을 만들고, 또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켜봐 오신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20년, 아니 그 이후까지도 국립국어원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령: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